

간송 조임도의 문학에 나타난 낙동강 연안과 그 의미*

김 소 연**

차 례

- | | |
|----------------------------------|------------------------------|
| 1. 서론 | 2) 회고(懷古)를 통한 시간적 소통
의 공간 |
| 2. 낙동강에 대한 조임도의 인식 | 4. 조임도에 대한 후대의 기억 전승 |
| 3. 조임도의 문학에 형상화된 낙동강
연안 공간 | 5. 결론 |
| 1) 인맥적 소통을 통한 동류지락
(同類之樂)의 공간 | |

국문초록

본고는 조임도의 문학에서 낙동강 연안이 어떠한 공간으로 형상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의 사후 그것이 지니는 의미를 도출했다. 강이 차안과 피안을 가르면서도 둘을 시공간적으로 소통시키듯, 낙동강 연안은 조임도에게 인맥적·시간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었다. 인맥적 소통은 조임도가 사우들과 교유하면서 이루어졌는데, 그 속에서 그는 동

* 이 글은 한국문학언어학회에서 주관한 '2019년도 제6차 학술대회(고전문학)'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류지락을 느꼈다. 시간적 소통은 역사 및 고인에 대한 회고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임도는 역사와 고인을 떠올리며 과거와 소통할 수 있었고, 인간사의 허무함을 느꼈다. 낙동강 연안을 통해 조임도는 여러 가지 문학적인 상상력을 펼칠 수 있었다.

조임도가 낙동강 공간을 이와 같이 형상화한 것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후대의 문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후대의 문인들은 낙동강 연안의 합강정사를 중심으로 조임도의 행적을 집단적으로 기억하고 전승했다. 그리고 낙동강을 통해, 이들에게 조임도는 여러 학파를 융통한 인물로 기억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조임도와 후대의 문인들 사이에는 시대를 뛰어넘은 시간적 소통이 이루어졌다.

주제어 : 조임도(趙任道), 간송(澗松), 낙동강(洛東江), 영남(嶺南), 강안학(江岸學), 소통, 회통(會通), 함안(咸安), 합강정사(合江精舍), 경양대(景釀臺)

1. 서론

강은 예로부터 교통의 요지이면서 수량이 풍부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생활의 근거지가 되어 왔다. 강이 교통의 요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강의 흐르는 성질 때문이었다. 강의 흐름을 따라 사람들은 배를 타고 물질적·문화적으로 서로 교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강은 흘러서 바다로 이어짐으로써, 강안의 나루를 중심으로 내륙과 해양 지역을 연결시켜 주었다. 즉 강은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소통의 길이었던 것이다.¹⁾ 강들 중에서 낙동강은 경상도를 관통하면서, 경상도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이 되

1) 정우락, 「낙동강과 그 연안 지역의 공간 감성과 문학적 소통」, 『한국한문학연구』 53, 한국한문학회, 2014, 174쪽.

었으며, 경상도의 여러 지역이 물질적·문화적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강은 주변의 자연물들과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 내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예로부터 강과 그 주변에서 풍류 생활을 영위했다. 그 예로는 강가에 거처를 마련하여 은거하거나, 강에서 선유(船遊)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간송 조임도(澗松 趙任道, 1585~1664)가 살았던 17세기에는 영남의 향촌 사족들이 낙동강에 누정을 건립하여 자신의 거처로 삼은 경우가 많았다. 조임도의 합강정(合江亭)을 비롯하여, 한강 정구(寒岡 鄭述, 1543~1620)의 사양정사(泗陽精舍), 낙재 서사원(樂齋 徐思遠, 1550~1615)의 선사재, 망우당 곽재우(忘憂堂 郭再祐, 1552~1617)의 망우정, 여헌 장현광(旅軒 張顯光, 1554~1637)의 부지암정사(不知巖精舍), 두암 조방(斗巖 趙瑋, 1557~1638)의 반구정(伴鷗亭) 등이 그 예이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의 학맥과 혈연을 바탕으로, 낙동강에서 함께 선유하거나 낙강시회(洛江詩會)를 결성한 경우가 많았다. 한강학파가 낙동강 중하류에서 선유하며 시회를 개최한 것과, 창석 이준(蒼石 李竣, 1560~1635)이 1622년 7월에 동지들과 개최한 낙강시회 등이 그 예이다.

조임도는 경상남도 함안 출신의 산림학사로 함안의 세족이었다. 그가 살았던 경상남도 함안은 남강과 낙동강이 합류하는 지역으로, 낙동강의 하류 지역이었다. 조임도는 상봉정(翔鳳亭) 및 합강정 등 지어, 함안의 낙동강 연안에 자신만의 공간을 구축하여 그곳에서 거처했다. 그는 생애의 절반 이상을 낙동강 연안에서 은거했고, 그의 문학과 학문의 대부분이 낙동강 연안에서 이루어졌다.²⁾ 그 속에서 조임도에게 낙동강 연안은

2) 장성진, 『낙남 합류지역의 임란 직후 시』, 『낙동강과 경남』(남재우 외 5인, 부산: 선인, 2014, 78-79쪽.

한편, 조임도가 이와 같이 함안의 낙동강변에서 거처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집안의 영향도 있었다. 조임도의 아버지인 입암 조식은 상포(上浦)에서 별서를 경영했고, 조임도의 숙부인 조방(趙瑋)은 두암대에 반구정을 지어 은거했다.(김학수, 『선유

일상생활의 공간이 되기도 했고, 타인과의 교류의 공간이 되기도 했으며, 자신의 정감이나 생각을 담아내는 공간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조임도의 문학 작품에서 낙동강은 여러 가지 공간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 낙동강 연안에서 조임도는 자신의 일상을 시로 그리거나, 스스로가 지향하는 삶을 노래하기도 했으며, 낙동강 연안 지역과 관련한 인물과 역사를 생각하기도 했다. 그리고 낙동강에서 사우들과 만나서 어울린 것을 시로 형상화하기도 했다. 그는 일생동안 수많은 시를 지었는데, 그 중 120여 편이 낙동강 연안과 관련한 문학 작품이었다. 특히 그는 <강재십이영(江齋十二詠)>을 지어, 함안에 있는 자신의 거처를 시로 구축하기도 했다.³⁾ 문학 작품이 창작된 공간이 작자의 의식을 지배하고, 작자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점⁴⁾을 고려했을 때, 조임도의 문학에서 낙동강 연안이 차지하는 중요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고에서는 조임도의 문학에 나타난 낙동강 연안의 공간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조임도에 대한 선행 연구는 그의 사상과 학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임도를 남명학과 퇴계학과의 융합으로 본 연구부터 시작하여, 조임도의 학문과 학맥을 스승인 장현광의 영향 및 여헌학과와의 관계 속에서 탐구한 연구, 함안 지역에서 조임도가 학문적으로 끼친 영향 등을 다룬 연구, 조임도의 선유를 통해 그의 사우와 학맥을 분석한 연구 등을 들 수 있다.⁵⁾ 조임도의

를 통해 본 낙강 연안 선비들의 집단 의식 - 17세기 한려학인을 중심으로, 『영남학』 1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0, 86쪽.)

- 3) 趙任道, <江齋十二詠>, 『詩〇五言絶句』, 『澗松集』 卷1.
본고에서 인용한 『간송집』의 원문 및 국역은 정현섭·양기석·김현진·구경아·김익재·강현진이 국역한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의 『간송집』을 참고한 것이다.
- 4) 조혜훈, 「18세기 경주권 題詠 漢詩 연구」, 신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40쪽.
- 5) 김우형, 「간송 조임도의 학문과 사상 - 여헌 장현광과의 사상적 영향 관계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29, 동양고전학회, 2007, 29-56쪽.
김학수, 앞의 논문, 85-91쪽.

문학은 시문을 통해 그의 현실 인식을 다룬 연구, 낙동강 근처 공간에서 지은 작품에 대한 연구 등을 들 수 있다.⁶⁾

선행연구 검토 결과, 조임도의 한시는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은거하며 수양하고, 자족하며 주변의 산수를 즐기는 처사적 삶을 지향하며, 조임도가 문학을 통해 지역 사회의 교화를 이루려 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조임도가 참여하거나 주도했던 낙동강에서의 선유는 사우 간의 친목 도모 및 향촌 사림들 간의 결속력 강화를 가져왔으며, 이 과정에서 양산된 시문은 하나의 계보가 되었다고 한다.

조임도의 삶을 보면 낙동강 연안은 그의 문학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임도의 문학 작품에 대한 연구 중 그의 문학 작품을 낙동강 연안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하여 진행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고에서는 조임도의 문학 작품에서 낙동강 연안이 어떠한 공간으로 형상화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 2장에서는 낙동강이 지니는 특성과 조임도의 행적을 바탕으로, 조임도가 어떻게 낙동강을 인식하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낙동강 연안이 조임도 문학에서 형상화된 양상을 인맥적·시간적 소통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4장은 3장에 대한 의미를 논하는 장이라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조임도 사후 후대의 문인들과 연결지어, 낙동강 연안에

허권수, 『南冥·退溪 兩學派의 融和을 위해 노력한 澗松 趙任道』, 『南冥學研究』 11, 慶尙大學校 南冥學研究所, 2001, 1-35쪽.

_____, 『만성 박치복의 학문과 사상 : 함안의 학문적 전통과 만성 박치복의 역할』, 『남명학연구』 23,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07, 1-58쪽.

6) 박순남, 『간송 조임도의 <三綱九絕句>에 대하여』, 『국제지역통상연구』 2, 국제지역통상학회, 2005, 21-49쪽.

오용원, 『간송 조임도의 현실인식과 그 시적 형상화』, 『선주논총』 10, 금오공과대학교 산업기술개발연구원, 2007, 69-90쪽.

장성진, 『낙남 합류지역의 임란 직후 시』, 『낙동강과 경남』(남재우 외 5인), 선인, 2014, 61-88쪽.

서의 조임도가 후대에 문학을 통해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를 도출하고자 한다.

2. 낙동강에 대한 조임도의 인식

강물은 시공간적인 측면에서 차안과 피안을 경계 짓고 단절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차안과 피안을 시공간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한다. 먼저, 공간적 측면에서 강물이 차안과 피안의 사이를 채워서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이는 배를 통해 교통과 운수가 이루어지는 데서 알 수 있다. 이는 강으로 경계 지어진 차안과 피안을 이어주며, 차안과 피안이 물질적으로 교류할 수 있게 만들었다. 강물을 통한 차안과 피안 간의 물질적 교류는 둘 사이의 문화적·정신적 소통으로 이어졌다.⁷⁾

낙동강 역시 그러했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낙동강은 영남 지역을 경상좌도와 경상우도로 나누었다. 그러나 경상좌도와 경상우도는 낙동강을 끼고 서로 물질적·문화적으로 소통할 수 있었다. 경상좌도와 경상우도의 문인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두 지역의 문인들은 낙동강의 동서를 드나들며 사상적·학문적으로 교류했다.⁸⁾

조임도는 낙동강 연안에 거처하면서, 낙동강을 특별하게 생각했다. 그 역시 낙동강이 지닌 이와 같은 특징을 염두에 두고, 낙동강을 통해 경상좌도와 경상우도가 회통(會通)한다고 이해했다. 이러한 점은 그가 낙동

7) 정우락, 『모순의 힘 : 한국문학과 물에 관한 상상력』, 대구:경북대학교출판부, 2019, 298-299쪽.

8) 학맥의 경우, 경상좌도는 퇴계학파에, 경상우도는 남명학파에 속하는 지역이었다. 두 학파가 소통했던 대표적인 예로 고령의 죽유 오운(竹攄 吳灋, 1540~1617)·성주의 동강 김우옹(東岡 金宇顛, 1540~1603)·정구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이황과 조식의 학문을 모두 이어받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퇴계학파와 남명학파의 회통성을 보였다.(정우락, 앞의 논문, 182-183쪽.)

강 연안의 여러 지역의 문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休言江水限西東	강물이 동서를 나눈다고 말하지 마라,
從古神交遠近同	예로부터 정신적으로 사귀는 건 원근이 같으니.
何必合堂聯席後	어찌 반드시 같이 살고 나란히 앉은 뒤에라야,
兩家情誼始相通	두 집안의 정의를 비로소 서로 통하겠는가.

君在江西我在東	그대는 강 서쪽에 나는 동쪽에 있으니,
東西雖別意相同	비록 동서로 나뉘었지만 뜻은 서로 같네.
會須月白涼生夜	응당 달 밝고 서늘한 밤에는,
一帶煙波水道通	한 줄기 안개 낀 수면 물길이 통하는데. ⁹⁾

이 시는 조임도가 강선립(姜善立)에게 준 시이다. 조임도가 스스로 강의 동쪽에 있다고 언급한 것을 볼 때, 이 시의 강은 조임도가 거쳐하던 낙동강일 것이다.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수는 모두 조임도와 강선립이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물리적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이야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임도는 강선립과 정이 있으며 뜻이 같다고 한다. 이들의 정의(情意)는 두 번째 수에 언급된 한 줄기의 물길[一帶水道]로 이어지고 있다. 즉 조임도는 낙동강을 매개로, 강선립과 정신적으로 맞닿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시를 통해 조임도가 낙동강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알 수 있다. 낙동강이 경상도를 좌우로 나눌지라도, 경상좌도와 경상우도는 모두 학문과 도학에 뜻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정신적으로 회통한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두 지역의 정신적 회통은 낙동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는 조임도로 하여금 낙동강 연안에 거쳐하는 여러 문인들과 교류할 수 있게 했다.¹⁰⁾ 이때 낙동강 연안은 조임도가 이들과 교류하며 인간

9) 조임도, <次姜善立 二首>, 『詩〇七言絶句』, 『간송속집』 권1.

10) 조임도는 여헌학파에 속했지만, 가학이나 사우 관계를 보면 퇴계학파와 남명학파·한강학파와도 맞닿았다. 또 그는 남명학파의 문인 및 한강학파의 문인들과

대 인간으로 소통하는 주요한 공간이 되었다.

다음으로, 시간적 측면에서 강물은 과거와 현재·미래를 이어준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이 흘러가는 물의 속성 때문이다. 조선 시대의 문인들은 이와 같은 물의 특성에 주목하여, 물을 통해 시간적 연속성과 항상성을 발견하여 이를 문학 작품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들은 강물에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와 자연의 이치에 주목하거나,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상고하거나 계승하기도 했다. 강물을 통해 과거와 현재·미래가 연결된 것이다. 즉 강은 시공간적으로 차안과 피안을 가르면서, 차안과 피안을 소통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¹¹⁾

낙동강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영남을 관통하는 낙동강의 연안에는 신라·가야와 연관되는 지역이 있었다. 신라는 경주를 수도로 하여 영남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나라였다. 가야는 금관가야를 맹주로 하여 김해·상주·고령·성주·창녕·함안 등 낙동강 하류 지역에 세워진 나라였다. 그리고 고운 최치원(孤雲 崔致遠, 857~?)은 황산강의 임경대에 올라 시를 읊었는데, 황산강은 낙동강의 하류에 속했다. 이 때문에 수많은 문인들이 낙동강 연안에서 과거의 역사와 인물을 떠올릴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낙동강이 지닌 신라·가야의 역사는 그 당대를 뛰어넘어 조선 시대의 문인들에게까지 전승될 수 있었다.

신라와 가야뿐만 아니라, 낙동강 연안에는 영남루·축석루·매화정 등 수많은 누정이 남아 있었다. 이들 누정은 낙동강을 끼고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냈다. 이 때문에 수많은 문인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고인(故人)이 된 누정의 주인이나 누정과 관련한 내력을 떠올리기도 했다.

도 교류했다. 그의 학문 성향 및 사우 관계에 대한 논의는 허권수의 논문(『南冥·退溪 兩學派의 融和을 위해 노력한 澗松 趙任道』, 『南冥學研究』 11, 慶尙大學校 南冥學研究所, 2001, 359-363쪽.) 및 박순남의 논문(『澗松 趙任道の 「三綱九絶句」에 대하여』, 『국제지역통상연구』 2, 국제지역통상학회, 2005, 24-30쪽.)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1) 정우락, 앞의 책, 163쪽.

조임도 역시 그러한 문인들 중 하나였다. 그는 낙동강 연안의 고적을 방문하면서 고인 및 역사를 떠올렸다. 이는 조임도로 하여금 그가 살았던 당대를 뛰어넘어 과거를 상기시키게 만들었다.

낙동강 연안에서의 인맥적·시간적 소통을 바탕으로, 조임도가 어울렸던 낙동강 연안의 범위는 내륙 지역을 비롯하여 바다인 김해까지 나아갔다. 강이 흘러서 바다로 나아가 확장되듯, 조임도의 문학에 나타난 낙동강은 여러 강안 지역을 아우르며 그의 문학적 상상력을 확장시켰다. 이를 통해 조임도의 문학 작품에서 낙동강 연안은 여러 가지 공간으로 그려질 수 있었다.

3. 조임도의 문학에 형상화된 낙동강 연안 공간

1) 인맥적 소통을 통한 동류지락(同類之樂)의 공간

조임도는 함안의 낙동강 연안에 거처를 지어,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은거했다. 그의 거처와 그 주변은 낙동강을 끼고 있어 경치가 뛰어났다. 이 때문에 그는 자신의 거처를 중심으로, 낙동강 연안에서 자연을 완상하면서 학문에 매진할 수 있었다. 특히 그는 그가 교유했던 친척 및 사우들과 함께 낙동강 연안을 소요하며, 그 속에서 느낀 바를 작품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가 어울렸던 사우들은 가계 및 학문적으로 연결되었다.

조임도가 친척 및 사우들과 자주 풍경을 완상했던 곳 중 하나가 경양대(景釀臺)였다.¹²⁾ 경양대는 함안군 내내리 우포(霧浦)에 소재했다고 하는 절벽으로, 은대 이인로(銀臺 李仁老)가 정자를 지었던 곳으로 전해진

12) 조임도는 1607년에 있었던 용화산동범(龍華山同泛)에 참여했다. 용화산동범은 경양대에서 펼쳐졌던 선유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김학수의 연구(앞의 논문, 64-71쪽.)에 자세하다.

다. 경양대의 북쪽으로는 남강이 흘러들었고, 동쪽으로는 낙동강이 흘렀다. 그리고 경양대에서는 비슬산·화왕산·영취산·여항산·영포(靈浦)·창암 등을 볼 수 있었다.

조임도는 경양대가 예로부터 풍경이 좋은 곳이라고 했다. 그것은 경양대 밑을 흐르는 강물에 하늘과 물새·달·별 등이 거울처럼 비치고, 저녁이 되면 노을이 지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냈기 때문이었다.

(가) 俯視下無地 굽어보니 아래로는 땅이 없으나,
 仰觀上有天 우러러보니 위로는 하늘이 있네.
 誰言眞境遠 누가 말했나? 선경이 멀다고.
 坐此卽神仙 이곳에 앉으니 곧 신선인 걸.¹³⁾

(나) 東南奇勝地 동남쪽 기이하고 빼어난 경치라면,
 萬古此山河 만고에 이름난 이곳 산하라네.
 物色經春媚 물색은 봄을 지나니 더 고와지고,
 風情得酒加 풍경은 술을 마시니 더 좋아지네.
 江村連野店 강마을은 들판 주막으로 이어지고,
 樵笛雜漁歌 초동의 피리소리 뱃노래에 뒤섞이네.
 酌酒臥篷底 일큰히 취해 조각배에 누웠으니,
 塵喧於我何 이 세상 시끄러움 나와 무슨 상관있으랴.¹⁴⁾

두 작품은 모두 조임도가 경양대에서 사우들과 어울리며 읊은 시이다. (가)는 경양대에서 선유하는 장면이다. 1구와 2구에서는 경양대의 풍경을 묘사했다. 경양대의 아래를 흐르는 낙동강물의 표면은 하늘을 거울처럼 반사시켜, 마치 경양대의 위아래가 모두 하늘이 된 풍경을 자아낸다. 이 때문에 조임도는 1구에서 경양대 아래에 땅이 없다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풍경 속에서, 조임도는 스스로가 선경에 있는 신선이 된 듯한 기

13) 조임도, <泛舟景釀臺下>, 『詩○五言絕句』, 『간송집』 권1.

14) 조임도, <追次李子粹 道純 遊景釀臺下韻>, 『詩○五言律詩』, 『간송집』 권1.

분을 느꼈다.

(나)는 조임도가 모재 이도순(慕齋 李道純, 1585~1625)의 시를 차운한 것이다. 이도순은 경양대에서 선유하며 시를 지었는데, 이때 조임도는 그와 함께 선유하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시에 차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시에서는 경양대가 영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며, 봄날 경양대의 풍경을 묘사했다. 봄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꽃이 피는 계절이다. 꽃이 핀 절벽과, 그 절벽을 반사시키는 강물의 수면이 빛어내는 경양대의 풍경은 조임도로 하여금 감흥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리고 강변의 평화롭고 일상적인 풍경은 조임도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일상적인 편안함을 느끼며, 조임도는 세속의 시끄러움을 잊고 탈속의 경지에 이른다.

이노천(李老泉)이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

清洛名區此釀眞	맑은 낙동강의 명승지 이 경양대가 진경인데,
祕慳千載屬斯人	천 년 동안 숨겨둔 비경을 이 사람에게 맡겼네.
無心營利修天爵	영리에는 마음 없어 도와 덕을 수양하고,
不用藏犀辟世塵	예리함을 감추어 쓰지 않고 속세에서 벗어났네.

案上書堆甘養性	책상 위의 책 더미는 성정을 즐기는 물건이고,
枕邊江闊可潛鱗	베갯머리의 너른 강은 물고기 잡을 만한 곳일세.
是知仁智能兼樂	인과 지를 알아 능히 그 즐거움을 겸했고,
俯仰乾坤愧此身	천지를 우러르고 굽어보니 이 몸이 부끄럽네. ¹⁵⁾

위 인용문은 <과종록(過從錄)>의 일부이다. <과종록>은 1629년 봄에 조임도가 임진부·계촌 이준(溪村 李浚)·택은 신시망(澤隱 辛時望, 1606~1676)·신동망(辛東望), 그리고 모정 배대유(慕亭 裵大維, 1563

15) 조임도, <過從錄>, 『錄序說記』, 『간송별집』 권1.

~?)의 조카들과 함께 6일 동안 선유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배를 타고 경양대를 출발하여 창암·우포·창암대·청송사(靑松寺) 등을 구경했고, 배 위에서 시를 읊고 주변 정경을 감상했으며, 밤새 음주가무를 즐기기도 했다.

인용문의 시는 이 당시에 이준이 지은 시로, 이준은 선유하는 동안 조임도와 경전의 내용에 대해 토론하기도 했다. 이 시에서 이준은 경양대의 풍경을 통해, 조임도의 은거 생활을 떠올린다. 1수의 1~2구에서는 경양대의 풍경이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가 조임도와 선유했던 당시 계절은 봄이었다. 물가에는 만개한 봄꽃과 푸른 산이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졌고, 물고기와 새는 봄의 기운을 받으며 약동했다.

이 당시 조임도의 거처는 합강정사로, 합강정사 역시 낙동강 연안에 위치했으며 경양대와 가까웠다. 조임도는 합강정사와 경양대를 오가며, 세상사에 연연하지 않고 자연을 완상하며 학문과 심신 수양에 힘썼다. 2수에서는 이에 대해 이야기하며, 조임도가 그 속에서 인지(仁智)를 체득하고 천지를 굽어본다고 했다. 3구의 인지(仁智)는 요산요수(樂山樂水)와 연결된다.¹⁶⁾ 경양대와 합강정사의 풍경을 생각했을 때, ‘베갯머리의 강(枕邊江)’과 ‘지(智)·요수(樂水)’는 낙동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양대와 합강정사를 통해, 낙동강 연안은 조임도에게 장수유식(藏修游息)을 실현하는 곳으로 그려진다.

합강정사의 연어대(鰲魚臺)·노어암(鱸魚巖)도 조임도가 지인들과 교류했던 공간이었다. 합강정사는 조임도가 49세에 함안군 용산현(靈山縣) 용산(龍山)마을로 이사하면서 마련한 거처로, 용화산과 낙동강을 끼고 있었다. 그는 정자 내부에 소재한 방들의 이름을 각각 합강정·망모암(望慕庵)·사월루(沙月樓)·와운헌(臥雲軒)이라 했고, 건물 주변의 자연물을 연어대·노어암으로 명명했다. 그리고 이들을 모두 합강정사로 일컬었다.

16) 『論語』, 『雍也』 6장, “子曰 知者 樂水 仁者 樂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樂 仁者壽”

합강정의 ‘합강(合江)’은 두 강이 합쳐짐을 의미한다. 여기서 강 두 줄기는 낙동강과 남강으로, 합안은 낙동강과 남강이 합류하는 지역이었다. 사월루·와운헌·노어암·연어대는 합강정사에서 보이는 풍경을 반영한 이름이었다. 연어대의 경우 『시경』의 연비어약(鳶飛魚躍)에서 유래했다. 이곳에서 조임도는 생계를 유지하며, 소란한 세상사를 잊고 학문에 침잠했다. 성리서를 읽으며 성현을 좇았고, 자연 속을 소요하며 연비어약과 같은 성리학적 이치를 체험하기도 했다.

평소에는 합강정사에 드나드는 이가 거의 없었지만, 장현광·조일(趙鎰, 1578~1647)·이수강(李壽樞, 1613~?) 등 때로는 조임도의 지인들이 합강정사를 방문하였다. 이들은 조임도와 함께, 합강정사의 노어암·연어대에서 자연 풍경을 완상했다.

(가) 今夕知何夕	오늘 저녁이 어떤 저녁인지 아는가.
佳賓滿一堂	훌륭한 손님들이 온 집에 가득하다네.
江清新月浴	강물이 맑아 새로 뜬 달이 목욕을 하고,
霜重落英香	된서리 내리니 떨어진 꽃이 향기롭네.
草草杯盤設	변변찮은 술상을 마련하니,
溫溫笑語長	따뜻한 웃음꽃 그치지 않네.
…… 17)	

(나) 누대(연어대)가 그런 이름을 얻은 데는 어찌 연유가 없겠는가? “대개 천지를 조화 육성하여 높은 곳과 낮은 곳에 훤히 드러난다.”라는 뜻을 취한 것이다. 사물을 바라보는 묘한 이치와 스스로 터득한 아취가 이 속에 다 들어 있으니, 마음으로 터득하여 누대에 붙인 것이다. …… 바람을 타고 나는 모래톱의 물새와 연기가 안개 속 대나무는 언제나 책상 앞에 있었으며, 구름이 끼고 날이 개며 아침과 저녁에 따라 천변만화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한번 보기만 해도 표표히 세상을 버리고 홀로 우주에 선 듯한 마음이 들게 하였다. 속세의 마음을 모두 없애고 세상 근심을 모두 잊고 자기 자신이 하계에 있는 줄 알지 못하게 하니, 진실로

17) 조임도, <合江亭示同遊諸賢>, 『詩〇五言律詩』, 『간송집』 권1.

이른바 고상한 은자가 오락가락할 곳이지 티끌 세상에 사는 속된 모습을 하고서는 올라서 걸어 다닐 곳이 아니로다.¹⁸⁾

(가)는 어느 날 밤 조임도가 합강정사에서 음풍농월을 하며 지은 시이다. 찬 기운이 가지지 않은 어느 초봄의 밤, 조임도는 지인들과 함께 합강정사의 자연 풍경 속에서 술을 마시며 즐거워했다. 이들이 합강정사에서 보았던 자연 풍경은 연어대와 노어암 일대일 것이다. 이날 낙동강은 맑았고, 달과 꽃향기가 이들의 흥취를 더욱 돋웠다.

그러나 합강정사는 탈속의 경지나 음풍농월의 즐거움만을 느낀 공간이 아니었다. 합강정사는 도학(道學)의 경지를 느낄 수 있었던 공간이기도 했다. (나)는 조임도의 육촌 조카인 조일이 쓴 <연어대서(鳶魚臺序)>의 일부이다. 조일은 종제인 조회중(趙會中)과 함께 합강정사를 방문하여 조임도를 만나고 연어대에서 소요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곳에서 조일은 세상의 속된 것들을 잊고 은자의 삶과 자연의 이치를 떠올렸다.

연어대에는 어떠한 날씨 속에서도 푸르고 곧은 대나무가 있었다. 대나무는 사군자 중 하나로, 곧은 모습으로 인해 올바름과 절개의 상징이 되었다. 이는 출사하지 않은 채 합강정사에서 경전을 공부하고 마음을 수양했던 조임도의 고고한 모습과 연결된다.

다음으로, 연어대에서는 날씨와 주야(晝夜)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이 펼쳐졌다. 대자연 속에서, 날씨의 변화와 주야의 순환은 인간의 인위적인 행위가 가해지지 않아도 매일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상이었다. 이는 만물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치를 의미한 『시경』의 연비어약과 상통한다. 조일은 연어대라는 이름에 담긴 뜻을 생각하며, 자연 속에 내재된 천지만물의 조화와 우주의 질서를 체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성리학에서 지향하는 수양론과 연결될 수 있었다. 자연 속에 내재된 천리(天理)를 인간의 심성론을 연결시켜, 수신

18) 沈惲·趙鑑, <鳶魚臺序 二篇〇臺在龍華山麓洛江之南青松寺之西北隅>, 『국역 금라전신록』(조임도 저, 이명성·장성진 번역), 대구:함안문화원, 2010, 145-148쪽.

(修身)하여 자신의 심성을 본래의 선함으로 회복하고자 한 것이다. 즉 합강정사는 조임도가 은거하던 곳이면서, 조임도와 그의 지인들이 교유하며 자연의 이치와 심신수양의 경지를 체득할 수 있었던 곳이었다.

夜靜江天月滿舟	고요한 밤 강 하늘에 달빛만 가득 싣고,
同來三侶摠仙儔	함께 가는 세 벗은 모두가 신선들이네.
此行不是閒遊衍	이 여행은 한가롭게 멋대로 노는 것이 아니니,
直泝眞源向上流	곧 참된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 상류로 향하네. ¹⁹⁾

조임도는 한몽삼(韓夢參, 1589~1662)·박도원(朴道元, 1593~1648) 등과 함께 1626년 가을에 배를 타고 낙동강을 거슬러 대구의 도동서원과 구미의 오산서원, 그리고 스승인 장현광을 방문했다. 이 시는 그 당시에 조임도가 밤중에 배를 타면서 지은 시이다.

달이 뜬 밤과 강물이 만든 풍경은 고요하고 세상과 동떨어진 분위기를 자아내었다. 그 속에서 조임도는 사우와 함께하는 즐거움과 신선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낀다. 그러면서 3~4구에서는 배를 타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참된 근원[眞源]을 찾는 것이라 하여, 사우들과의 선유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고 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성리학에서 원두(源頭)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원두는 물의 발원지로, 성리학자들은 원두를 통해 심신 수양을 떠올렸다. 원두가 맑아야 흘러가는 물이 맑듯, 인간의 선한 본성이 악으로 물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성리학자들에게 학문은 인간의 선한 본성을 보존하는 방법이었다. 조임도 역시 선유하며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학문과 같다고 보고 있었다.²⁰⁾

이처럼 함안의 경양대와 합강정사를 중심으로, 낙동강 연안은 조임도

19) 조임도 <蔚津船中 示同行二友>, 『詩〇七言絶句』, 『간송집』 권2.

20) 조임도, <尋賢錄>, 『錄序說記』, 『간송별집』 권1, “余忽契悟於心曰 古詩所謂 爲學須如上水船者 其謂此歟”

가 그의 지인들과 교류하며 소통하는 장이 되었다. 낙동강 연안에서 지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조임도에게 낙동강 연안은 탈속(脫俗)의 경지와 학문의 이치를 체험하는 공간이 되었다. 그리고 지인들과의 교류는 교학상장으로도 나아갈 수 있었다. 교류를 통해 함께 서로를 책선하고, 스스로를 반성할²¹⁾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조임도는 동류지락을 느꼈다.

2) 회고(懷古)를 통한 시간적 소통의 공간

함안과 밀양·부산 등, 낙동강 연안 지역에는 그와 관련한 역사가 담긴 고적이나 고인(故人)의 흔적이 깃든 건물이 남아 있다. 낙동강 연안의 고적과 건물은 낙동강을 끼고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면서, 그와 관련한 역사적인 사실 및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때문에 낙동강 연안에 위치한 건물과 고적은 예로부터 수많은 문인들에게 탐방의 대상이 되었다.

조임도는 낙동강 연안의 건물과 고적들을 방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촉발된 자신의 정서를 시로 표현했다. 이를 통해 그는 고인의 행적을 떠올리거나, 이와 관련한 역사를 회고했다. 그리고 국가 및 사적의 흥망성쇠, 영원한 시간 속에서 소멸하고 변화하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성 등을 이야기했다.²²⁾ 즉 그는 낙동강 연안을 통해 과거를 바라보았다고 할 수 있다.

21) 조임도, <과종록>, 『錄序說記』, 『간송별집』 권1, “古之士欲得朋友與琴瑟簡編者常使此心在此 無外馳放佚之患 而三者之中 朋友之益尤多 故朋來遠方 夫子樂之以文會友 曾氏稱之”

22) 회고란 ‘옛 인물이나 사건을 돌이켜 생각하다.’라는 뜻이다. 회고의 본질은 촉경서정(觸景抒情), 즉 눈앞의 전경(前景)으로부터 촉발된 시인의 감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회고의 경우 역사적 지역을 방문하여 이를 시적으로 형상화하더라도, 역사 자체보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지역의 풍광의 유물로 인해 촉발된 자신의 정서를 서술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손대현, 『영사가사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35-37쪽.)

(가) 扣柵水雲路 물속 구름길로 노를 저어서,
 重尋名勝區 이름난 승경을 다시 찾았네.
 臺空石一片 누대는 비었고 바위만 한 덩어리.
 月古江千秋 달도 옛 달이고 강도 그대로라네.
 鶴駕去無影 학을 타고 떠나가 자취도 없이,
 仙翁何處遊 신선이 된 노인네는 어디에서 노닐까.
 登眺一長嘯 정자에 올라 둘러보며 길게 읊조리니,
 蒼蒼山自愁 푸른 산들이 절로 근심하는구나.²³⁾

(나) 絕代奇男子 세상에 다시없을 뛰어난 남자,
 忘憂郭相公 망우당 곽 상공이라네.
 居家操懿行 집안에서 훌륭한 행의를 지키더니,
 臨亂效精忠 난리에 임하자 충정을 바쳤네.
 勇退名場外 명리를 추구하는 곳에서 용기 있게 물러나고,
 危言濁世中 혼탁한 세상에 곧은 말을 했다네.
 誰知磯上竹 누가 알겠는가? 낚시하던 바위 위의 대나무가,
 千載灑清風 천 년 동안 맑은 바람에 씻기는 것을.²⁴⁾

두 작품은 조임도가 객재우의 사후에 망우정(忘憂亭)을 방문하여 읊은 시이다. 망우정은 객재우가 만년에 은거하던 곳이었다. (가)에서 조임도는 밤에 배를 타고 망우정을 방문했다. 망우정의 건물과 주변의 풍경은 그대로인데, 정자의 주인인 객재우는 보이지 않는다. 사람은 없는데 자연물인 바위와 달, 강은 그대로라고 함으로써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5~6구에서는 객재우를 신선으로 그리며, 그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님을 암시했다. 마지막 구에서는 이에 대한 조임도의 슬픔이 산에 의탁되어 드러난다.

(나)에서는 객재우가 임진왜란 때 의병활동을 하고, 곧은 말을 했다가 파직 당했던 사실²⁵⁾을 언급하며 그의 의로움을 칭송하고 있다. 객재우

23) 조임도, <宿忘憂亭>, 『詩〇五言律詩』, 『간송집』 권1.

24) 조임도, <忘憂亭感興>, 『詩〇五言律詩』, 『간송집』 권1.

의 행적을 떠올리며, 조임도의 시선은 바위에 있는 대나무로 옮겨 간다. 대나무는 예로부터 사군자의 하나로, 푸르고 곧은 모습으로 인해 절개와 의리를 상징했다. 조임도는 대나무를 통해, 광재우의 의로운 행적을 더 부각시키며 그의 행적이 길이길이 전해질 것을 암시하였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지만, 인간이 자취를 남긴 자연물과 건물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의 흔적으로 남는 경우가 있었다. 조임도에게 망우정은 광재우의 의로운 행적을 떠올리고 기억하는 장소가 되었다. 그가 과거의 인물과 역사를 회고했던 장소는 함안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낙동강 연안의 여러 지역에 분포했다.

(가) 海雲風月多年間 해운의 풍월을 수년 간 못 봤구나.
 崔仙一去臺無顏 최선선이 한 번 가니 대(臺)도 볼품없네.
 我泛滄溟領勝槩 나도 푸른 물결에 배 띄우고 좋은 경치 즐기는데,
 鏡裏秋山相對看 물에 비친 가을 산이 서로 마주 보는구나.²⁶⁾

(나) 西風一棹溯空明 서풍에 배를 저어 맑은 강을 거슬러 올라가,
 來訪孤山舊廢亭 고산의 무너진 옛 정자를 방문하였네.
 日暮殘雲棲古樹 저물녘 흩어지는 구름은 고목에 서려있고,
 秋深缺月印寒汀 늦가을 이지러진 달은 차가운 모래톱을 비추네.
 琴書寂寞今何處 거문고와 책 적막하니 지금 어디 있는가?
 梅鶴淒涼只有名 매학정은 처량하여 이름만 남았네.
 惆悵名區久無管 명승 오래 관리하지 않은 것을 슬퍼하니,
 一江鷗鷺亦含情 강의 해오라기 또한 정을 머금네.²⁷⁾

두 시는 조임도가 낙동강 연안에서 건물과 사적을 통해 과거의 인물

25) 1600년에 광재우는 이원익의 파직을 비판했다. 이후 그는 청병하며 재직 중이던 경상좌도병마절도사를 사임하고 귀향했다. 이로 인해 그는 사헌부의 탄핵을 받고 영암(靈巖)으로 귀양을 갔다.

26) 조임도, <黃江舟上次鄭誠甫韻>, 『詩〇七言絶句』, 『간송집』 권2.

27) 조임도, <孤山梅鶴亭懷古>, 『詩〇七言律詩』, 『간송속집』 권1.

을 떠올린 경우로, 인간의 유한함과 자연의 영원함 사이의 간극이 나타난다. (가)는 조임도가 황강에서 정성보의 시를 차운한 것이다. 황강은 경상남도 합천군 일대를 흐르는 강으로, 합천군에는 가야산이 있다. 가야산은 최치원이 삶의 만년을 보낸 곳이자, 그가 죽어서 신선이 되었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이 때문에 조임도는 1구와 2구에서 최치원을 언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야산에 최치원은 없고 그와 관련한 전설이 남아 있을 뿐이다.

조임도가 살았던 시대에 최치원은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최치원이 머물렀던 가야산은 조임도의 시대까지 남아 있었다. 그리고 황강의 강물 역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흐르며 가야산을 비추고 있었다. 이는 인간의 짧은 삶과 자연이 대비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그 속에서 조임도는 최치원의 부재를 느끼며 물결에 어른거리는 가야산을 바라본다.

(나)는 조임도가 매학정을 방문하고 지은 시이다. 매학정은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예강리 낙동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초성(草聖)으로 이름났던 고산 황기로(孤山 黃耆老, 1521~1567)가 이곳에서 서예를 즐기며 은거했다고 하며, 황기로는 이곳을 그의 사위 옥산 이우(玉山 李瑀, 1542~1609)에게 물려주었다.²⁸⁾ 그러나 매학정은 임진왜란 때 불에 탔고, 1654년에 다시 지었다고 한다.

조임도가 배를 타고 매학정을 방문했을 때, 매학정의 주인이었던 황기로와 이우는 오래전부터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2구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 당시에 매학정은 전란으로 불타버린 뒤 재건되기 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인 없는 매학정의 터는 서늘한 가을밤 속에서 달빛을 받으며 소슬한 정경을 빚어내고 있다.

이러한 정경 속에서, 조임도는 강변을 날아다니는 구로(鷗鷺)에 자신의 슬픔을 의탁한다. 오랜 세월 속에서 인간인 매학정의 주인은 세상을 떠났고, 매학정은 전쟁이라는 인간사를 피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리고 말

28) 정우락, 앞의 논문, 199쪽.

았다. 조임도가 느낀 슬픔은 바로 이와 같은 인간사의 유한함과 덧없음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離宮臺下水空流	이궁대 아래 물은 하릴없이 흐르고,
千載新羅夢已悠	천년 신라의 꿈은 이미 아득하네.
把酒勸君須痛飲	술 잡아 그대에게 권하니 통쾌하게 마셔야 하리.
古今人世一蜉蝣	예나 지금이나 인간세상은 하루살이 신세이니. ²⁹⁾

이궁대는 경상남도 밀양시에 있던 유적으로, 현재는 밀양시 초동면 검암리에 그 터만 남아 있다. 이궁대의 남쪽으로는 낙동강이 흐르고, 그 주변의 경치가 뛰어났다고 한다. 신라의 왕이 이궁대에서 노닐었다는 전설이 전해지며, 지증왕이 강우(江右) 지역의 대가야와 금관가야를 정벌하고자 장수에게 명하여 이궁대에 진을 쳤다고 한다.

이궁대 아래로 흐르는 강물은 그로 하여금 신라 왕조를 떠올리게 했다. 신라 왕조는 천 년 가까이 존재했지만 오래전에 멸망했다. 그러나 낙동강의 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궁대 앞을 흐르고 있다.

신라의 경우처럼, 인간이 만든 문명과 국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흥망성쇠를 반복하며 변화한다. 문명과 국가를 건설하고 유지해 나가는 인간의 삶이 유한하며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사는 변동성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사와 달리, 자연물인 강물은 시간이 지나도 항상 흐르는 성질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지속성과 영구성을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이궁대를 중심으로 낙동강과 신라 왕조 사이에는 영구성과 변동성으로 서로 대비되는 지점이 생긴다. 이 때문에 조임도는 자연으로서 항상 흘러가는 낙동강을 보고, 오래전 멸망한 신라를 생각하면서 인간사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느끼며 술잔을 기울였다.

29) 조임도, <甲戌秋與鄭誠甫 憲 諸君登離宮臺>, 『詩〇七言絶句』, 『간송집』 권2.

滿載群賢一葉舟	많은 어진 이를 가득 실은 한 척의 조각배,
浮河達海恣遨遊	강에 떠 바다에 이르도록 마음껏 돌아다니네.
寺名甘露人誰期	절 이름은 감로사인데 누가 창건했으며,
山號神魚世幾周	산은 신어산이라는데 세월 얼마나 지났는가.
徵士清風餘古廟	징사의 고결한 품격은 옛 사당에 남았고,
露王異蹟但荒丘	수로왕의 기이한 사적은 다만 폐허가 되었네.
奇觀未了歸帆促	기이한 경관 다 못 봤는데 돌아갈 배 재촉하니,
夢落三叉七點頭	꿈이 삼차수와 칠점산에 떨어지네. ³⁰⁾

이 시는 1635년에 조임도가 여과언(呂果彦)·강자림(姜子霖)·송퇴재(宋退哉) 등과 함께 배를 타고 김해의 신산서원에 제향을 하러 가던 도중에 지은 시이다. 3구부터는 조임도가 김해에서 봤던 고적 및 건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가야와 고려 시대의 사적, 그리고 남명 조식(南冥 曹植, 1501~1572)과 관련한 사적을 이 시에 담았다. 이들은 모두 낙동강 연안에 위치했다.

4구의 신어산에는 감로사와 신산서원이 있었다. 감로사는 1237년 고려 시대에 지어졌는데, 조임도는 1635년 김해에 갔을 때 이곳을 방문했다. 5구의 ‘옛 사당[古廟]’은 신산서원을 가리킨다. 신산서원은 조식이 배향된 서원으로, 조식의 사후에 그를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다. 신산서원이 건립된 곳은 조식이 생전에 경영했던 산해정의 동쪽이었다. 조식은 30세에 신어산 기슭에 산해정을 짓고 18년 동안 학문에 침잠했다.

조임도는 당시 신산서원의 원장이었고, 그의 학문은 남명학과 맞닿아 있었다. 그러므로 그에게 신산서원은 특별하게 다가올 수 있었다. 이에 그는 조식을 존경하고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조식을 ‘징사(徵士)’·‘청풍(淸風)’이라 일컬었다. 징사는 학덕이 높은 선비를 이르는 말이다.

6구부터는 가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해는 가야의 발원지라는 점에서, 가야와 관련한 유적지가 많았다. 구지봉(龜旨峯)·칠점산(七點

30) 조임도, <乙亥暮春東遊感興>, 『詩〇七言律』, 『간송집』 권2.

山) 등이 그 예이다. 구지봉은 가야의 시조인 수로왕과 다섯 형제가 태어난 곳이었다. 칠점산은 삼차수(三叉水)³¹⁾의 연안에 위치하며, 금관가야의 고도였다. 이곳에는 선인이 가야의 거등왕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놀았다는 전설이 전해진다.³²⁾ 그러나 가야는 오래전에 멸망했고, 가야의 역사와 전설은 서적 등을 통해 전해질 뿐이다.

6구에서 조임도가 수로왕의 사적을 이야기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특히 조임도가 가야의 사적에서 느낀 바는 조식의 사적에서 느낀 바와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다. 이는 5구에서 조식의 사적을 ‘청풍(淸風)’으로 표현하면서, 6구에서 수로왕의 사적을 ‘기이한 사적[異蹟]’·‘폐허[荒丘]’라고 표현한 것에서 드러난다. 이를 통해 조식의 사적은 청량하고 고결한 느낌을 주는 반면, 수로왕의 사적은 이와 대비되면서 더욱 황량하게 느껴진다. 수로왕의 사적에서 느껴지는 바는 인간사의 허무함과 쓸쓸함으로 연결될 수 있다.

과거의 인물은 이미 고인이 되었고, 신라·가야 등의 국가는 멸망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이들의 흔적과 역사는 낙동강 연안에 남아 조임도에게까지 전승되었다. 조임도는 낙동강 연안의 여러 지역을 오르내리면서, 이와 관련한 인물과 역사를 회고하며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다. 이는 그로 하여금 견문을 넓히고 기개를 펼칠 수 있게 했다.³³⁾

31) 김해로 흘러온 낙동강은 퇴적물을 싣고 삼각주를 형성하고, 그 흐름이 세 갈래로 갈라지며 바다로 흘러들어 간다. 이 때문에 이 지역이 ‘삼차수’로 불렸다고 한다.

32) 임경홍, 「七點山詩의 樣相과 鄭夢周의 金海 體驗詩」, 『포은학연구』 5, 포은학회, 2010, 39-40쪽.

33) 조임도, <유관록>, 『錄序說記』, 『간송별집』 권1, “余自戊午以後 結廬江上 無時不與雲水相對 無日不與魚鳥相隨 山水之樂可謂久矣 而猶以不得一辦壯遊 浮河達海 大吾觀助吾氣爲恨 今而後夙志始伸矣 烏可無一言以誌其顛末乎”

4. 조임도에 대한 후대의 기억 전승

조임도는 낙동강 연안을 통해, 지인들과 소통했고 과거와 소통했다. 조임도 이외에도 수많은 문인들이 낙동강 연안에 소재한 사적 및 고인의 누정을 방문하여, 그와 관련한 문학 작품을 남겼다. 시대적으로 보면, 이는 조임도 당대뿐만 아니라 그의 전대 및 후대에도 이루어졌다. 특히 조임도가 방문했던 매학정의 경우 강안제일명구(江岸第一名區)로 일컬어지며, 수많은 문인들이 이곳을 방문했다.³⁴⁾ 김해의 칠점산 역시 마찬가지였다. 칠점산을 방문했던 이들은 칠점산의 경관과 전설을 시로 읊었다.³⁵⁾

문인들의 사적 및 고인의 누정 방문을 통해, 낙동강 연안은 문학 속에서 특정 역사 및 인물을 상징하는 장소로 형상화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여러 시대에 걸쳐 지속적·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낙동강 연안에서 펼쳐진 일종의 문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조임도가 낙동강 연안에서 과거와 소통하며 남긴 작품들은 이러한 문화 활동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한편, 조임도가 낙동강 연안에서 시간적으로 과거와 소통했듯, 조임도 후대의 문인들도 낙동강 연안을 통해 고인이 된 조임도를 기억했다. 이들은 조임도가 머물렀던 곳을 직접 방문하여, 조임도의 자취와 학문을 떠올렸다. 후대의 문인들은 주로 합강정사·경양대·창암 등을 통해 조임도를 기억했다.

이것은 낙동강 연안을 통해, 조임도에 대한 기억이 조임도의 당대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의 사후에도 잊히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즉 후대의 여러 사람들이 낙동강 연안을 통해 조임도에 대한 기억을 집단적으로 전승함으로써, 조임도와 후대의 문인들 간에 시간적 소통이 이루어진 것이

34) 정우락, 앞의 책, 299-300쪽.

35) 임경흠, 앞의 논문, 49-50쪽.

라 할 수 있다. 이때 합강정사 등은 조임도에 대한 기억을 형상화하고 전승하는 장소가 된다.

합강정사는 조임도가 구축한 이후 중수를 거쳐 현재까지 남아 있으며, 합강정·연어대·노어암·망모암·상봉정·상로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임도 사후 수많은 문인들이 합강정사를 다녀갔다. 특히 합강정사는 1930년에 조임도의 문집을 인쇄하는 곳이 되었다. 이는 합강정사가 조임도에 대한 기억을 전승하는 중요한 공간이었음을 시사한다.

(가) 名亭物色浩無邊 이름난 정자 빛깔이 성대하고 끝이 없으며,
 積水羣山擁後前 모여든 물 여러 산이 앞뒤로 끼여 있네.
 君子藏修留世澤 군자께서 장수유식하시고 세택을 머무르게 하여,
 賢孫看護作家氈 현손이 지켜서 집을 이루었네.
 深秋景幻丹青幅 늦가을 경치에 미혹되고 단청이 넓어,
 遠浦光涵上下天 멀리 수면에 빛나 상하와 하늘을 적시네.
 翔鳳滄巖俱入望 상봉정과 창암에 함께 들어와 바라보매,
 一江三絕世人傳 강 한 줄기 삼절(三絶)이 세인에게 전해지네.³⁶⁾

(나) 先生遺躅最高臺 선생께서 가장 높은 대에 자취를 남기셨으니,
 鼓枻中流一溯洄 중류에서 노를 저어 하나로 거슬러 올라가네.
 赤壁匏樽今日舉 적벽의 포준을 오늘 들매,
 淸泝春服遠方來 맑은 흐름과 봄옷이 멀리서 바야흐로 오네.
 千年水勢淵源潤 천년동안 물의 기운과 연원은 활발하고,
 九曲山光錦繡開 구곡 같은 산의 빛은 비단이 펼쳐진 듯하네.
 此會年年誰與健 이번 모임은 해마다 누구와 꺾끗하게 하리오?
 西巖夜傍且含盃 서쪽 바위 변에서 밤에 또 잔을 머금네.³⁷⁾

36) 朴來吾, <合江亭>, 『詩』, 『尼溪集』 권3.

본문에서 인용한 『이계집』의 원문은 남명학교문헌시스템(<http://nmh.gsnu.ac.kr/>)에서 인용했다. 아래에 나오는 『質菴集』·『尼溪集』·『心齋集』·『淸臺集』의 원문들도 이와 같다.

37) 崔璧, <合江亭船遊時 謹次趙澗松韻 辛未>, 『詩』, 『質菴集』 권5.

(가)는 이계 박래오(尼溪 朴來吾, 1713~1785)가 영남의 명승을 유람하던 중, 합강정사에서 지은 작품이다. 박래오는 합강정사에서 낙동강의 물결에 비치는 자연의 풍경을 감상하며, 조임도를 떠올린다. 그는 이 당시 합강정사뿐만 아니라 상봉정·창암을 방문했다. 상봉정은 조임도가 합강정사를 마련하기 전에 거처했던 곳이고, 창암은 조임도가 사우들과 선유했던 곳이었다. 7~8구에서 합강정사와 상봉정·창암은 모두 낙동강으로 관통되었고 있는데, 이를 통해 박래오는 조임도의 자취가 보존되어 자신의 세대까지 계승되고 있음을 표현했다.

(나)는 질암 최벽(質菴 崔璧, 1762~1813)이 합강정사에서 선유하며 조임도의 시에 차운한 것이다. 이날 그가 참여했던 선유는 소식(蘇軾, 1036~1101)의 적벽고사와 관련이 있었다. 적벽고사는 소식이 1082년 적벽에서 선유한 후 <적벽부>를 지은 일을 말한다. 낙동강에서는 문인들을 중심으로 소식의 적벽고사를 계승한 선유가 이어졌다.

최벽은 적벽고사를 떠올리며 자연을 완상하고 벗들과 음주가무를 즐기면서, 한편으로는 학문의 연원과 구곡(九曲)을 떠올린다. 둘은 모두 성리학에서 심성 수양과 관련이 있다. 2구에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원두(源頭) 의식과 관련이 있는데,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 공부를 통해 학문의 연원을 찾아간다는 의미다. 이는 조임도가 배를 타고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간 것을 학문과 동일선상에 둔 관점과 상통한다. 그리고 최벽은 과거와 변함없이 활발하게 흐르는 낙동강의 강물처럼, 학문의 연원 역시 그러하다고 보았다.

구곡은 주희(朱熹, 1130~1200)의 무이구곡과 관련이 있다. 주희는 무이산의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며, 경치가 아름다운 곳 아홉 군데를 선정하여 <무이도가>를 지었다. 주희가 무이산의 계곡을 거슬러 올라간 것 역시 원두 의식이 발현된 것이다. 이처럼 최벽은 합강정사의 자연 풍경을 주희의 구곡에 비유함으로써, 합강정사를 심신 수양의 공간으로 그렸다. 이는 조임도가 생전에 합강정사에서 지인들과 교류하며 장수유식을

실현한 것과 연결된다.

3년이 지난 병인년(1806) 5월에, 선생이 오셔서 서산서원을 주관하며, 강석을 베풀어 제생들에게 강론했다. 돌아가는 길에 도흥보(道興步)에 이르러, 배를 띄우고 합강정가에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 풍영하며 휴식했다. 예전에 기망일에는 밤부터 비가 왔는데, 처음으로 강이 맑아지고 달이 밝아, 온갖 형상이 아름다움을 갖추었다. 이에 차례로 술을 돌렸다. 선생께서 명하시니 자리에 나아가 성씨와 이름을 기록했다. 원근에서 모인 자가 70여 인인데, …… 나는 문득 유연(油然)히 스스로 생각했다. ‘지금 나의 선생이 한강(寒岡)의 정맥으로서 한강의 유산을 이어가며, 이를 밟는 것은 가히 우리에게 다행스럽다 이를 만하니, 나 또한 간송 선생의 후예로서 스승을 좇아 친지들을 모셨다. 간송선생이 옛날에 노닐과 같다.’³⁸⁾

위의 글은 조임도의 후손인 심재 조성렴(心齋 趙性濂, 1836~1886)이 기록한 글이다. 이 글은 성재 허전(性齋 許傳, 1797~1886)이 문인들과 함께 합강정사에서 선유한 일을 담고 있다. 1866년 5월 기망일에 허전은 합강정사에서 70여 명의 문생들과 함께 낙동강을 유람했다. 이날 허전은 서산서원에서 문인들과 함께 학문을 강론했 후, 배를 타고 합강정사 주변의 자연 풍경을 감상하며 시를 읊조렸다. 그리고 이때 지어진 시들을 <용화동주록(龍華同舟錄)>으로 남겼다. 이때 선유에 참여했던 이들은 시를 지으며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조성렴의 경우 자신의 선조인 조임도와 용화산동범을 떠올릴 수 있었다. 조임도는 1607년 정구와 장현광·곽재우 등이 참여했던 용화산동범

38) 趙性濂, <合江亭同泛錄序>, 『序』, 『心齋集』 권3, “越三年 丙寅端陽之月 先生來主西山之院 設臯比 講諸生 歸路到道興步 泛舟而上合江亭 溯洄風詠摩挲 舊躡時則既望宿雨 初開江清月白 萬象俱佳 乃以次行酒 先生命 就坐錄名氏 遠近會者七十餘人而 …… 余忽油然 自念曰 今我先生以岡翁之正脈 續岡翁之遺 躡斯可謂吾林之幸 而余亦以澗松先生族裔 從師陪親 如澗松昔日之遊 …… 遂不避僭妄請以文述 事退而爲之序”

에서 이날의 선유를 기록으로 남겼다. 조성렴은 합강정사에서 선유에 참여하여, 자신 역시 조임도의 뜻을 이어 허전과의 선유를 기록으로 남겼음을 밝혔다. 합강정사가 조임도의 거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1866년 허전과 그의 문인들이 선유한 곳이 합강정사였다는 것은 일정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외에도 의암 안덕문(宜庵 安徳文, 1747~1811)·응와 이원조(凝窩 李源祚, 1792~1872)·사미헌 장복추(四未軒 張福樞, 1815~1900)·한주 이진상(寒洲 李震相, 1818~1886)·회당 장석영(晦堂 張錫英, 1851~1929) 등이 합강정사를 다녀갔고, 이에 대한 작품을 짓기도 했다. 합강정사의 방문과 이와 관련한 문학 작품의 창작은 한 세대로만 그치지 않고, 조임도의 사후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적·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합강정사에서 자연을 완상하거나, 여럿이 모여 선유하기도 했다. 조임도와 그의 지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들은 그 과정에서 성리학의 이치를 체험하며 심신을 수양했고, 조임도의 삶과 학문을 존중하는 태도를 드러내었다. 이를 통해 합강정사는 조임도의 삶과 학문을 집단적으로 기억하고 전승하는 공간이 되어 갔다.

한편, 후대의 문인들은 낙동강을 통해 조임도의 학문적 경향이 지닌 특징을 도출하기도 했다. 아래의 시는 후대의 문인들이 낙동강을 통해 조임도의 학문적 경향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보여준다.

(가) 杖屨徜徉地	머무르시며 노닐던 곳에,
小亭依舊橫	작은 정자 옛날 그대로 놓여 있네.
蒼巖留古色	창암에는 고색이 머무르고,
綠水帶幽情	녹수는 그윽한 정을 두르었네.
一脉陶山翠	한 줄기는 도산의 푸름이요,
千年秋月明	천년 동안 가을 달의 밝음이네.
超然得心省	초연히 마음의 성찰을 얻으니,

聊復濯塵纓 애오라지 거듭 먼지 낀 갓끈을 씻네.³⁹⁾

(나) 洛水泐泐 낙동강은 출렁출렁 흘러와,
 遙連退溪正派 멀리 퇴계의 정맥과 이어지고,
 菁江混混 청천강은 세차게 흐르니,
 只是德川下流 덕천에서 흘러온 것입니다.
 語道脈則私淑寒旅門牆 도통을 말하면 한강·여헌의 문하에서 사숙
 하여,
 論水委而恰當南北津筏 물이 모인 곳을 논하면 남북으로 이르기
 적합했습니다.
 師承授受之有自來 학술을 전수받은 것은 유래가 있고,
 出處行藏之略相似 출사와 은거가 대략 서로 비슷하였습니다.⁴⁰⁾

(가)는 청대 권상일(淸臺 權相一, 1679~1759)이 상봉정에서 지은 시이다. 상봉정은 조임도가 합강정사를 마련하기 전 거처했던 곳으로, 1920년에 합강정사에 편액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는 이곳에서 조임도의 삶과 학문을 떠올렸다. 마지막 구에서 ‘갓끈을 씻는 것[濯塵纓]은 세속으로부터 벗어나 은거하며 자신의 지조를 지킴을 의미한다.⁴¹⁾ 이는 조임도가 상봉정에서 은거하며 학문에 침잠한 것을 연상케 한다. 이를 통해 권상일은 조임도의 삶이 지조 있다고 함으로써 그에 대한 존숭의 마음을 드러내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3~6구이다. 여기서 권상일은 상봉정에서 바라본 창암과 낙동강[綠水]을 ‘도산의 푸름[陶山翠]’과 ‘가을 달[秋月明]’에 대비시키고 있다. ‘도산의 푸름[陶山翠]’은 조임도의 학문이 사승 관계를 통해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1570)과 맞닿음을 의미한다. 이황은 조선 성리학에서 도통(道統)의 중심에 있는 인물로, 성리학의 도통은 이정(二程)

39) 權相一, <翔鳳亭>, 『詩』, 『淸臺集』 卷1.

40) 權萬, <合江亭重建上梁文>, 『부록』, 『간송별집』 권2.

41) 『孟子』, 『離婁 上』 8장, “有孺子 歌曰 滄浪之水 清兮 可以濯我纓 滄浪之水 濁兮 可以濯我足 孔子曰 小子 聽之 淸斯濯纓 濁斯濯足矣 自取之也”

과 주희를 거쳐 이황에게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 도통은 ‘천년 동안 밝은 가을 달[千年秋月明]처럼 끊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이어져, 조임도에게 닿은 것이다. 즉 권상일은 낙동강을 통해 조임도의 학문이 이황의 그것과 연결된다고 본 것이다.

(나)는 합강정사를 중수할 때 강좌 권만(江左 權萬, 1688~1749)이 지은 상량문이다. 그는 합강정사에서 낙동강을 통해 조임도의 학맥을 떠올렸다. 특히 여기서 권만은 낙동강의 흐름에 비유하여, 조임도의 학맥이 퇴계학뿐만 아니라 남명학·한강학·여헌학을 아우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조임도의 학문은 곧 낙동강의 회통성과도 연결된다. 낙동강이 영남을 관통하며 영남의 여러 지역을 연결시키듯, 조임도의 학문이 낙동강처럼 영남의 여러 학문을 아우르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를 통해, 조임도는 후대의 문인들에 의해 영남의 여러 학문을 아우르는 인물로 그려졌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후대의 문인들은 낙동강 연안을 통해 조임도의 자취와 학문을 집단적으로 전승하고 기억했다. 그 중심에는 합강정사와 낙동강이 있었다. 이를 통해 고인이 된 조임도와 후대의 문인들 사이에는 시대를 뛰어넘어 시간적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조임도의 문학에서 낙동강 연안이 어떠한 공간으로 형상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지니는 의미를 도출했다. 조임도의 삶과 낙동강 연안은 서로 밀접했고, 그 역시 낙동강을 회통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조임도에게 낙동강 연안은 인맥적 소통과 시간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었다. 인맥적 소통은 조임도가 사우들과 교류하면서 이루어졌는

데, 그 속에서 그는 동류지락을 느꼈다. 시간적 소통은 역사 및 고인에 대한 회고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임도는 역사와 고인을 떠올리며, 과거와 소통할 수 있었다. 낙동강 연안을 통해 여러 가지 문학적 상상력을 펼칠 수 있었다.

조임도가 낙동강 공간을 이와 같이 형상화한 것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후대의 문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후대의 문인들은 낙동강 연안의 합강정사를 중심으로 조임도의 행적을 집단적으로 기억하고 전승했다. 이들은 또 조임도를 여러 학파를 융통한 인물로 기억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조임도와 후대의 문인들 사이에는 시대를 뛰어넘은 시간적 소통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낙동강 연안에서는 조임도 외에도 여러 문인들이 활동했고, 이들을 통해 낙동강은 여러 가지 공간으로 그려지기도 했다. 그리고 그 양상은 인물마다, 시기 및 학파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달라졌다. 한편, 조임도의 문학 작품에서 다뤄진 건물이나 자연물 외에도 낙동강 연안에는 여러 가지 건물이나 자연물이 있었고, 이들은 각각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으며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되었다.

조임도 이외의 다른 문인들에 의해 창작된 낙동강 연안과 관련한 문학 작품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낙동강 연안이 문학 속에서 형상화된 양상과 그 특징을 좀 더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후일을 기약하겠다.

참고문헌

1. 기본 텍스트

『潤松集』
『論語』
『孟子』
『心齋集』
『尼溪集』
『質菴集』
『清臺集』

2. 참고 논저

- 김우형, 「간송 조임도의 학문과 사상 - 여헌 장현광과의 사상적 영향 관계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29, 동양고전학회, 2007, 29-56쪽.
- 김학수, 「선유를 통해 본 낙강 연안 선비들의 집단 의식 - 17세기 한려학인을 중심으로」, 『영남학』 18,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0, 85-91쪽.
- 박순남, 「간송 조임도의 <三綱九絶句>에 대하여」, 『국제지역통상연구』 2, 국제지역통상학회, 2005, 21-49쪽.
- 손대현, 「영사가사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엄경흠, 「七點山詩의 樣相과 鄭夢周의 金海 體驗詩」, 『포은학연구』 5, 포은학회, 2010, 37-60쪽.
- 오용원, 「간송 조임도의 현실인식과 그 시적 형상화」, 『선주논총』 10, 금오공과대학교 산업기술개발연구원, 2007, 69-90쪽.
- 장성진, 「낙남 합류지역의 임란 직후 시」, 『낙동강과 경남』(남재우 외 5

인), 선인, 2014, 61-88쪽.

정우락, 「낙동강과 그 연안 지역의 공간 감성과 문학적 소통」, 『한국한문학연구』 53, 한국한문학회, 2014, 173-213쪽.

_____, 『모순의 힘 : 한국문학과 물에 관한 상상력』, 대구:경북대학교출판부, 2019.

조임도, 『국역 금라전신록』(이명성·장성진 번역), 대구:함안문화원, 2010.

조해훈, 「18세기 경주권 題詠 漢詩 연구」, 신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허권수, 「南冥·退溪 兩學派의 融和을 위해 노력한 澗松 趙任道」, 『南冥學研究』 11, 慶尙大學校 南冥學研究所, 2001, 1-35쪽.

_____, 「만성 박치복의 학문과 사상 : 함안의 학문적 전통과 만성 박치복의 역할」, 『남명학연구』 23,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2007, 1-58쪽.

남명학고문헌시스템(<http://nmh.gsnu.ac.kr/>)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Abstract>

The Nakdonggang River shore in Kansong Jo-imdo's literature and the meaning

Kim, So-Yeon*

This study analyzed how to image Nakdonggang River shore in Kansong Jo-imdo(1585~1664)'s literature, and deduced the cultural means of it after his death. Jo-imdo's life was in close connection with Nakdonggang River shore. River divide the space to this and that, as well as make them communicate spatiotemporally. Like this case, Nakdonggang River shore became the space of communication to him, in personal connections and time

Communication in personal connections was made by Jo-imdo's friendship with his academic friends, and he can feel consciousness of kind. This was associated with Gyeongyangdae and Hopgangjeongsa. Communication in time was made by the retrospect of history and the departed saint in Nakdonggang River shore. They were associated with ruins and the departed saint's architecture. These made him communicate with past, and feel the futility of human affairs.

His imagine about Nakdonggang River shore impacted on future classical scholars after his death. They collectively memorialized and transmitted Jo-imdo's Hopgangjeongsa. Through Nakdonggang River and its shore, they also understood that Jo-imdo put together many

*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such as Taegae(退溪), Nammyeong(南冥), Hangang(寒岡), and Yeoheon(旅軒). It made them communicate with departed Jo-imdo without the limit of period.

Key Words : Jo-imdo(趙任道), Kansong(澗松), Nakdonggang River(洛東江), Yeongnam(嶺南), kanganhak(江岸學), Hwetong(會通), communicate, Haman(咸安), Hopgangjeongsa(合江精舍), Collective memory

■ 논문접수 : 2020년 3월 25일

■ 심사완료 : 2020년 4월 16일

■ 게재 확정 : 2020년 4월 17일